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신수용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80 E-mail : shinsy@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UNCTAD, 글로벌 무역 위험 지속 증가 우려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FedEx, 싱가포르 지역본부 설립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미국, 항만 사이버보안 강화 본격화 ... 안전한 물류환경 기대
- 찰스턴·서배너항 - 美중부 복합운송서비스 일부 중단

▶ 공지사항

-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UNCTAD, 글로벌 무역 위험 지속 증가 우려

- ▶ UNCTAD는 최근 발발한 홍해, 흑해, 파나마 운하 사태로 주요 해운 경로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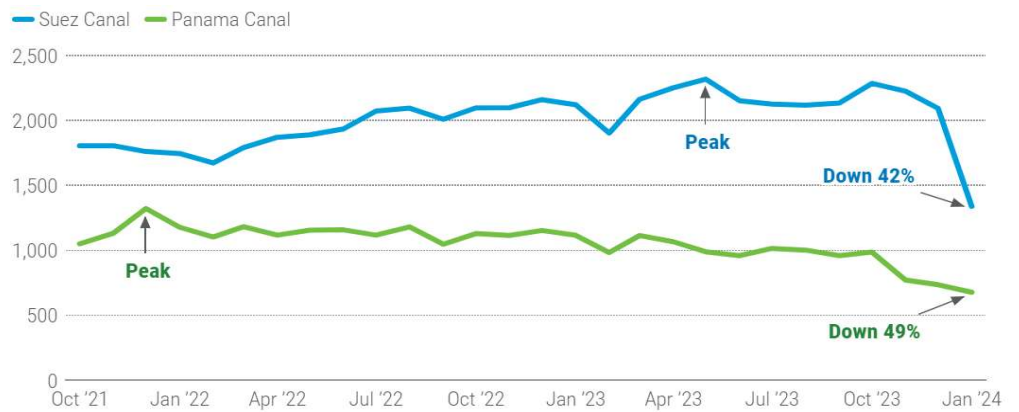
- UNCTAD는 지난 2월 22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물류망 혼란이 향후 글로벌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특히 홍해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흑해에서 지속되고 있는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유 및 곡물 무역 경로가 바뀌는 등 기존 무역 패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함
-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최고치에 비해 4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글로벌 선사들의 수에즈 운송 중단으로 주간 컨테이너선 운송이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동맥인 파나마 운하는 별도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수위는 글로벌 공급망의 장기적인 회복탄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 인프라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총 통행량은 최고치에 비해 4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파나마 및 수에즈 운하의 통행량 변화

2021년 10월~2024년 1월 수에즈 및 파나마 운하의 월별 통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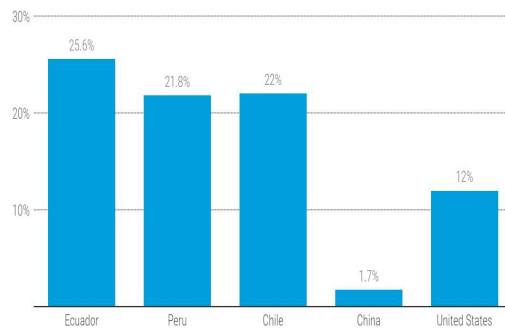
자료 : <https://unctad.org/>(검색일: 2024.2.26.)

- ▶ 파나마 및 수에즈 운하에 의존하는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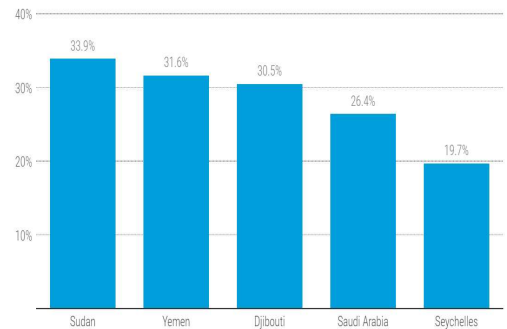
- 파나마 운하는 남미 서부 해안 국가의 대외 무역에 특히 중요함
- 에콰도르 무역량의 약 26%가 운하를 통과하고 있으며, 칠레와 페루의 점유율은 약 22%에 달함
- 동시에 여러 동아프리카 국가의 대외 무역은 수에즈 운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지부티와 수단의 해외 무역 규모는 각각 31%와 34%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로를 통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파나마 및 수에즈 운하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2021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무역량 비율(%)(톤)



2022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무역량 비율(%)(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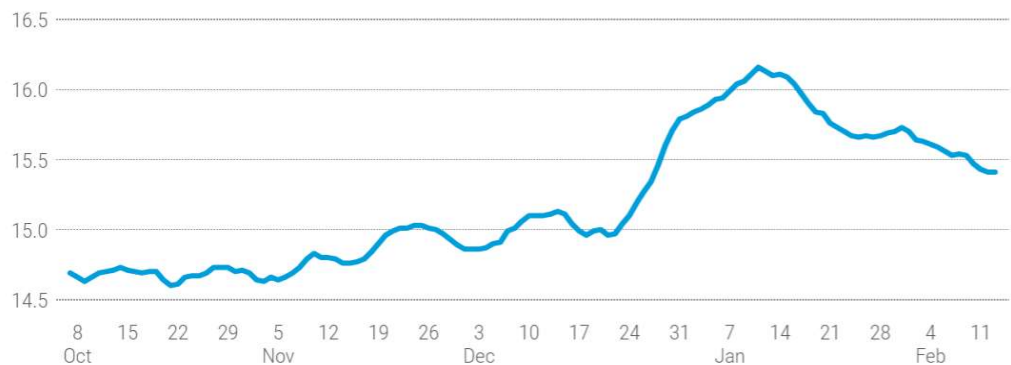
자료 : <https://unctad.org/> (검색일: 2024.2.26.)

물류대란에 따른 기후 영향

- 10년 넘게 해운업계는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운항 속도를 감소시켜 왔음
- 하지만 홍해 및 수에즈 운하와 같은 주요 무역로의 중단과 파나마 운하 및 흑해 등의 여파로 운송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선박 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료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음
- 실제 홍해 위기 시작 시 선박 항해 속도가 급등했다가 2024년 초부터 완화되기 시작함

선박 항해 속도 변화 추이

2023년 10월 7일~2024년 2월 13일, 7일 이동 평균, 노트(knot)

자료 : <https://unctad.org/> (검색일: 2024.2.26.)참고자료 : <https://unctad.org/> (검색일: 2024.2.26.)

미국, 항만 사이버보안 강화 본격화 ... 안전한 물류환경 기대

▶ 항만 내 사이버보안 사고 위험에 따라 물류 환경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우려

- 현재 항만은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최적화된 물류 흐름을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 업무 처리,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물류망과의 연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 그러나 최근 항만의 과도한 기술 의존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공격'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23년 3월 미국 국방부 및 안보당국은 중국 기업인 ZPMC에서 생산된 초대형 항만 크레인을 통해 화물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 미국 해안경비대 John Vann 사령관은 중국산 크레인 중 92대에 대해 보안 평가를 실시했으며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찾았다고 발표함
- 크레인을 통한 화물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전체 물류 공급망 운영의 문제뿐 아니라 화물의 분실, 훼손 등 물리적 손상까지 피해가 확장됨

미국 항만 내 크레인을 통한 사이버보안 사고 위험 증가

사해를 항만에 설치된 중국 ZPMC 크레인



미국 필라델피아항에 설치된 중국 ZPMC 크레인



자료 : <https://www.freightwaves.com>, (검색일: 2024.2.24.)

▶ 항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책 마련 진행

- 미국 항만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 증가에 따라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해양경비대에 해양운송체계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서명 계획을 밝힘
- 또한 중국 ZPMC 크레인을 통한 화물 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200억 달러 (약 26조7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 LA항만의 경우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운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그룹 내에서 LA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보안 조정 센터 구축 계획 등을 밝힘
- 이를 통해 정부 및 각 항만의 적극적인 항만 사이버보안 강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물류환경을 기대할 수 있음

➤ 미국 항만 내 사이버보안 강화 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안전성 향상 기대

- 교역량의 90% 이상이 항만을 통과하는 미국의 항만 사이버보안 강화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항만 사이버보안 강화는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을 보장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무결성을 보장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 또한 물류 과정 중 잠재적인 위협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물류 프로세스를 보장할 수 있음

항만 사이버보안 연결 인프라



자료 : <https://www.uscg.mil/Portals/0/Images/cyber>, (검색일: 2024.2.24.)

참고자료: <https://www.cnn.com> <https://abcnews.go.com> (검색일: 2024.02.25.)

찰스턴·서배너항, 美중부 복합운송서비스 일부 중단

- 철도회사인 Norfolk Southern Railway(이하 NS)가 3월 중순부터 찰스턴과 서배너항구에서 美중서부 3개 도시 간의 복합운송서비스를 취소한다고 통보함
 - 관계자는 2월초 조지아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항만들의 물량 부족을 이유로 시카고, 신시네티, 루이스빌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함
 - NS의 Shawn Tureman 부사장에 의하면, 대상 항만들의 서비스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3개 도시 대상 복합운송서비스는 다른 항만들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 밝힘
 - JOC의 Data 분석에 의하면, 2023년 총 1,000여 개 미만의 수입컨테이너가 찰스턴항과 서배너항에서 시카고와 신시네티로 이동했으며, 루이스빌의 경우 2,500~3,000개의 수입컨테이너가 이송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중단은 서배너항의 Mid-American Arc 홍보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시카고, 신시네티 및 루이빌로 향하는 대부분의 수입품은 뉴욕/뉴저지항 및 버지니아 항을 통해 수입됨
 - 서배너항은 2021년 개장한 Mega Rail Terminal을 통해 미국 중부를 대상으로 한 복합운송서비스 연계 서비스인 Mid-America Arc를 홍보해 왔으나, 이번 중단이 해상운송업체 및 화주 대상 기존 루트들의 대안인 서배너-시카고 서비스 제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Mid-American A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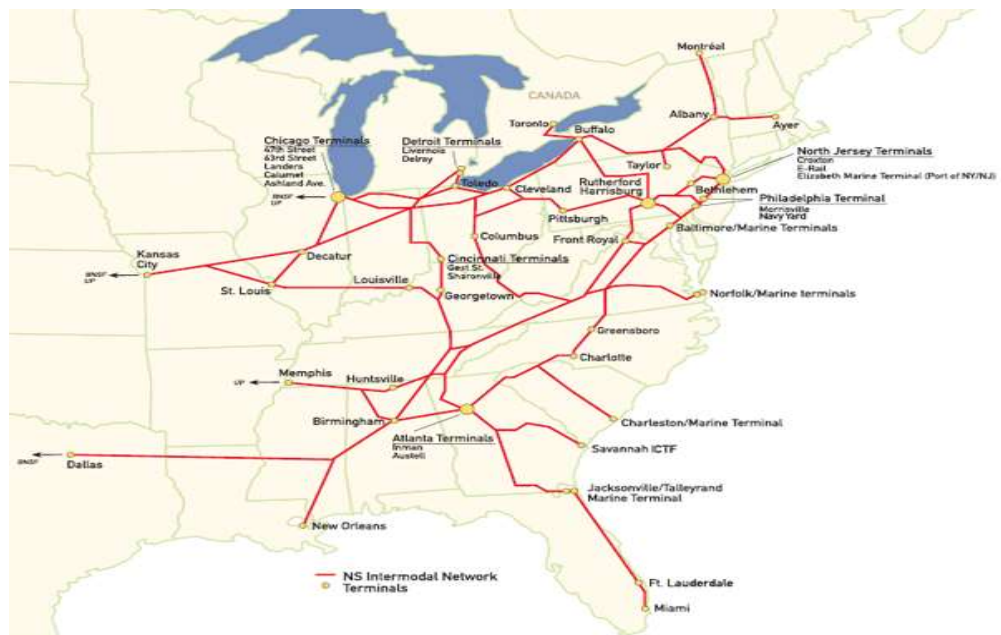
자료 : Georgia Port Authority

- 관련 항만 당국자들은 본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함
 - 중단 예정 혹은 기 중단된 버밍햄, 시카고, 신시네티, 루이빌,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NS 노선은 서배너항 복합운송 물동량의 5% 수준으로 타 철도회사인 CSX Transportation도 동일한 노선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찰스턴항 대변인 또한 본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선은 전체 국제복합 운송량의 3% 미만으로 기존 시카고, 신시네티, 루이빌 관련 서비스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 않은 대신 애틀랜타, 멤피스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내륙항만(컨테이너기지)에 노력을 집중했다고 밝힘

➤ 투입되었던 관련 구간의 철도 자원들은 수익성이 높은 타 구간에 투입될 예정임

- Shawn Tureman 부사장에 의하면, 이전 시카고, 신시내티, 루이빌에 투입되었던 철도 자원에 대해서는 애틀랜타, 멤피스와 기존 항만 간 노선과 같이 물동량이 많은 국제 복합운송 노선으로 투입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서배너항의 경우, 2023년 140,000개 이상의 수입화물이 서배너항에서 애틀랜타 및 멤피스 지역으로 운송했고 100,000개의 수출화물이 해당지역에서 서배너항으로 이동했음
- 항만당국자에 따르면, 금년 1월 서배너-애틀랜타 및 멤피스 간 수입량이 작년 1월 동기 대비 각각 35.7%, 45.6%로 급증했다고 밝힘

Norfolk Southern Intermodal Network



자료 : 미증권거래위원회 자료

FedEx, 싱가포르 지역본부 설립

- > Express(FedEx)가 2월 27일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운영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에 지역 본부를 설립함
 - FedEx는 앞으로도 현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물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전체의 물류 네트워크에 직접 투자하며, 산업 전문지식과 기술을 공유해 물류 운영 표준을 향상시킬 예정임
- >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은 싱가포르에 새로운 FedEx 지역 본부가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가 무역, 물류, 연결의 주요 글로벌 허브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 FedEx는 이미 싱가포르에 여러 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임
 - 동남아시아 전역 운영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FedEx 남태평양 허브와 의료 부문에 전문 저온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FedEx 생명과학 센터가 있음
 - FedEx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공급망의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이터 분석 우수 센터도 설립했음
 - 아시아태평양 보안운영센터(APSOC, Asia Pacific Security Operations Center)도 있으며 본 센터는 중요한 이벤트를 모니터링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edEx 자산과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곳임

싱가포르 지역 본부 개소식



자료: <https://postandparcel.info/>(검색일: 2024.02.27.)

- 또한, FedEx는 2월 27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국경 간 전기 자동차 배송 시험도 시작함
 - FedEx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물류를 촉진하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발표함
 - 운송경로는 샤알람의 FedEx 역에서 싱가포르 창이 공항의 FedEx 시설까지 'Maxus eDeliver 7'을 통해 총 406km의 거리를 이동하며, 본 경로 운행 시 예상되는 CO2 배출량 감소는 디젤로 구동되는 밴 기준 약 100Kg임
- 본 실험은 FedEx가 단계적 접근방식을 통해 2040년까지 전 세계 배송 차량 전체를 배출가스 제로인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위한 한 단계임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1.30(화) 09:00 - 3.8(금) 18:00

지원내용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대상사업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수행대상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
지원금액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2.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사업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 내 물류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수행대상	물류기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지원금액	· 물류기업 단독 수행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온라인 사업설명회('24.01.30~)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채널(<https://youtu.be/OfMtckT0JJI>)을 통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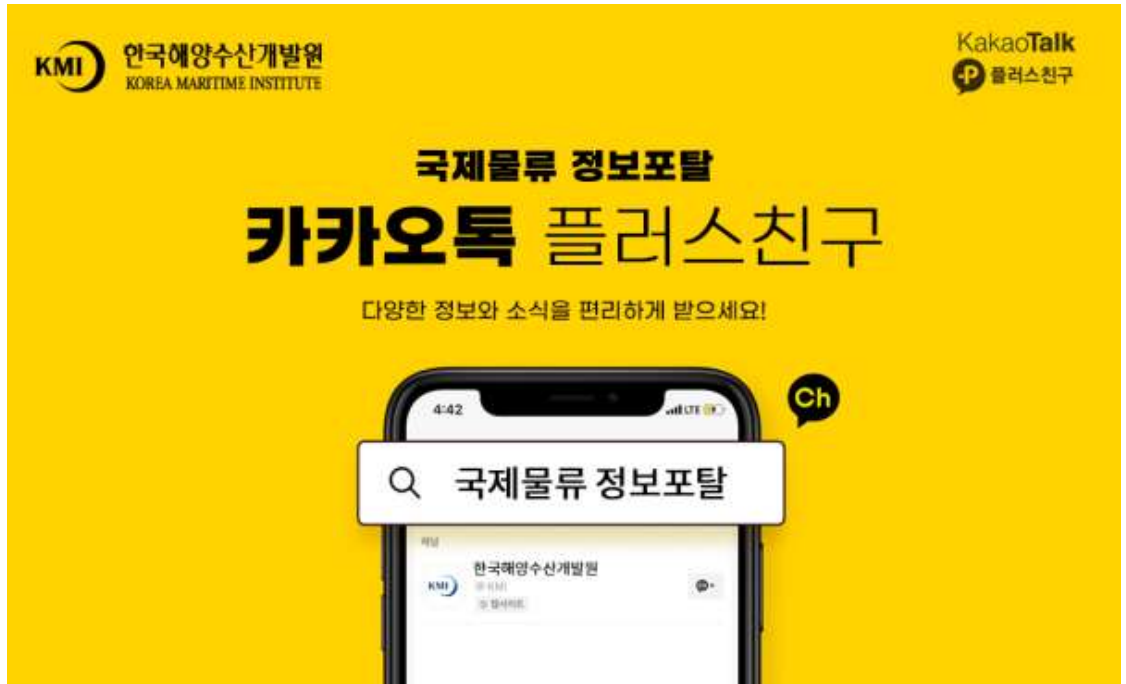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T 051-797-4770 E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전문연구원 T 051-797-4913 E kdong@kmi.re.kr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